횟집상인들 반대 '마량 회타운' 난항

"생존권 걸린 문제…공청회도 없이 추진이라니"

강진군 수협 "관광객 늘어 지역경제 활기 돌 것"

강진군 수협이 추진하는 대규모 회센터 건립사업이 마량지역 횟집상인들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10일 강진군 수협에 따르면 저렴한 가격에 활어를 공급해 관광객 유입과 관광명소화를 위해 마량면 수협 위판장 리모델링 계획을 세웠다.

건립한지 15년이 지난 위판장과 사무실을 합해 기존 14개 위판코너에서 20개로 확대하고 위판장 2층에 660㎡(200평) 규모의 시식코너를 만들어 1인당 5천 원을 내면 각종 식사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관광형 종합 회타운을 세울 예정이었다.

지난해 9월부터 설계에 들어가 3개월여의 공사기간을 거쳐 올 봄 문을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재 리모델링 사업은 전혀 진척이 없이 설계도 완료되지 못한 상태이다.

마량면에 위치한 22개 횟집대표들로 구성된 횟집연합회 에서 '생존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함에 따라 사업이 전면 중단됐기 때문이다.

횟집연합회는 "사업 시행전에 상가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한번 없는 '주먹구구식' "이라며 "대규모 새로운 회센터 건립은 지역상인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사업승인 절차에 대한 문제점도 꼬집고 있다. 군의회에서 사업승인시 국비와 군비·자부담 등 10억 원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인근 식당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횟집을 운영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진군 수협측은 "수협 위판장이 쉬는 날에는 관광객이 마량항에 거의 찾아오지 않을 정도로 위판장은 마량을 대표하는 관광상품 중의 하나"라며 "종합 회타운의 형태를 갖추면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마량항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횟집연합회는 위판장을 리모델링을 통해 대규모 회센터가 아닌 어민 복지관으로 건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횟집연합회 윤모씨는 "어판장 2층을 어민 복지관으로 건립해 어민 휴식공간 부족으로 인한 인근 어부들의 위판장 기피현상을 막아야 한다"며 "수협은 결국 임대사업자일뿐 상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어민을 생각하는 복지는 뒷전" 이라고 강조했다.

강진군은 10일 회센터 규모를 당초 660㎡(200평)에서 330㎡(100평)으로 축소해 횟집(50평)과 휴식공간(50평)으로 활용하고 1층 위판코너 20개중 6개를 횟집연합회에 임대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에 횟집연합회는 군 중재안을 23일 대의원 총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나 강진군 수협과 협의가 관철되지 않을시 완도 어판장 통한 공동 거래와 또다른 미니 어판장을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어 문제해결이 쉽지않을 전망이다.

마량주민 A씨는 "관광객 유입없이는 횟집역시 적자상태를 면하기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수협과 횟집대표들이 한발 양보해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눈 딱감고 1초만 참으세요"

화순군보건소(소장 김연수) 직원들이 최근 관내 노인에게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 이번 무료접종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 실시된다. 〈화순군 제공〉

나주배 '시설 현대화' 230명 선정

28억 투입 관정개발·배수시설 개선

고품질 나주배 생산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 올 영농기 이전에 추진된다.

나주시는 최근 2010년도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자 230명을 확정,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시는 사업비 27억7천200만원을 투입해 영농기 이전까지 ▲관정개발(64공) ▲배수시설(33ha) ▲미세살수(10ha) ▲품종갱신(6ha) ▲관수시설(62ha) ▲덕개량 37ha ▲방풍시설(8ha)에 지원할 계획이다.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지난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마련된 특별법에 따라 지원되고 있다.

나주배 과수농가에는 현재까지 114억원이 투입돼 고품질 나주배 생산기반 구축과 생산비 절감을 통해 나주배 대외경쟁력 제고에 기여했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장성 행복마을에 한옥도서관

6월 착공…2011년 7월 완공

2011년 7월께 장성군 황룡행복마을에 '한옥 공공도서관'〈조감도〉이 세워진다.

장성군은 황룡면 장산리에 조성중인 황룡행복마을에 총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1천463㎡, 시설면적 600㎡규모로 행복마을 분위기와 어울리는 한옥형 도서관으로 건립할 계획이다. 건물 내부에는 열람실과 디지털 자료실을 비롯해 서고,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최근 한옥건축, 도서관 운영, 공공디자인 관련 교수 및 전문가 6명으로 '한옥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한 설계자문위원회(위원장 박양종 부군수)를 구성했다.

군은 기본설계 단계와 실시설계 단계에서 설계 타당성, 시설물 안전성, 도서관 운영을 위한 건축공간의 구성 등에 대해 위원회에 자문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4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께 사업을 착공해 내년 7월께 도서관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이용객들에게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고, 행복마을 입주민들에게는 공동체생활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담양 170억 규모 투자 유치

郡-한국명가식품 등 4개사와 협약

담양에 신재생에너지 분야 특허 업체와 식품가공 기업이 잇따라 들어선다.

전남도는 10일 담양군청에서 박준영 도지사와 주영찬 담양군수 권한대행, 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명가식품, 준성이엔알, 에코에너지, 금오스마트 등 4개사와 17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투자협약에 따라 한국 명가식품(대표 신민수)은 무정면 오룡리 일원 8천㎡에 60억원을 투자해 80여 명을 고용하고 10여 종의 김치류를 포함한 발효식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특히 담양의 특성을 살린 '대나무 죽순 김치'도 개발하고 현지 주민과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해 생산된 제품은 국내 및 일본 시장에 판매할 계획이다.

전남대 산학협력관에 입주한 벤처기업으로 전력변환장치 분야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준성이엔알(대표 김종권)은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내 9천㎡에 50억원을 들여 풍력발전의 핵심부품인 인버터를 생산한다.

준성이엔알의 투자는 태양광·풍력 발전시스템 핵심 전력변환장치의 국산화를 통한 수입대체 효과와 미국·유럽 등 수출을 통해 전남도가 전략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코에너지(대표 배균택)도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내 5천㎡에 40억원을 투자해 50여 명을 고용, 신재생에너지인 공기열과 지열사업의 핵심분야인 히트펌프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 업체는 2008년과 2009년 지식경제부 지열사업의 일환으로 담양군 시설원예 분야에 공기열 히트펌프 27기를 설치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금오스마트(대표 조영용)는 전남도가 지난해 투자협약을 체결한 ABS 도어 전문생산업체인 (주)코스의 협력사로 수북면 대방리 4천㎡에 20억원을 투자해 목재 대체용 PVC 중문 등을 생산한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이들 기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 담양군, 군민이 합심해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은 물론 기업사랑운동에 적극 동참하자"고 당부했다.

/장필수기자 bungy@

담양 창평 '한옥지구' 지정

전남도 "제2 전주 한옥마을 만들 것"

박준영 전남지사는 10일 "슬로시티로 지정된 담양군 창평면 일대를 한옥지구로 지정하는 등 이 지역 일대의 도시계획을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이날 담양군청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서 "담양은 정말 아까운 땅으로 함부로 개발해서는 안되고 특히 창평은 전통문화가 살아있는 곳으로 보존가치가 매우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면사무소 등 행정기관부터 청사를 전통가옥으로 먼저 정비하고 이 지역의 주택과 상가 등도 모두 한옥으로 짓는 등 도시계획을 다시 정비해 전주의 한옥마을 처럼 창평을 전통이 살아 숨 쉬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

화순 '꽃송이버섯' 육성 탄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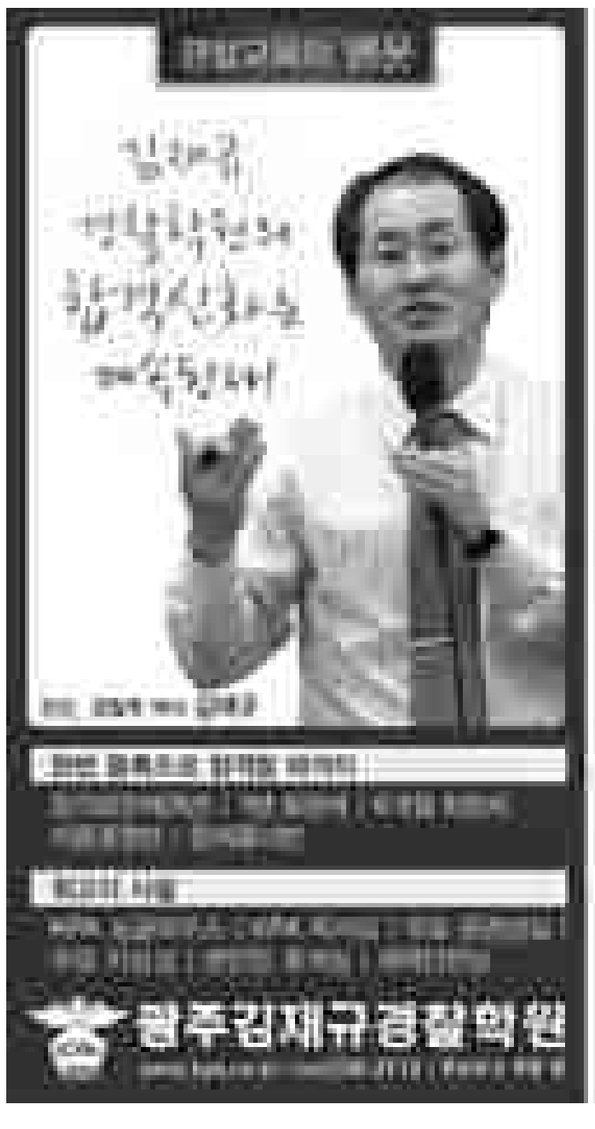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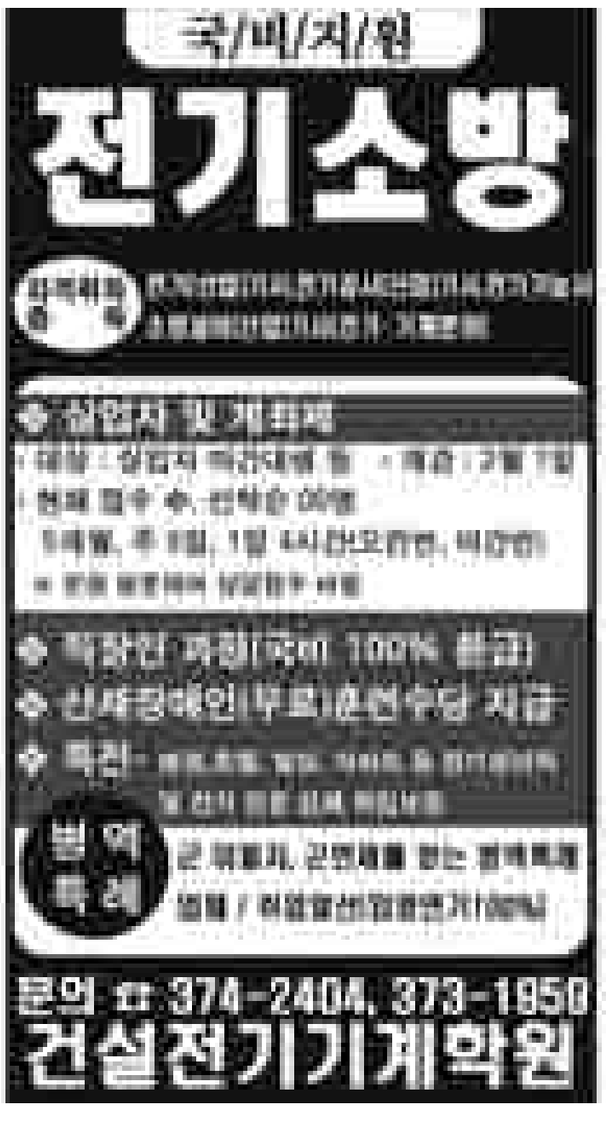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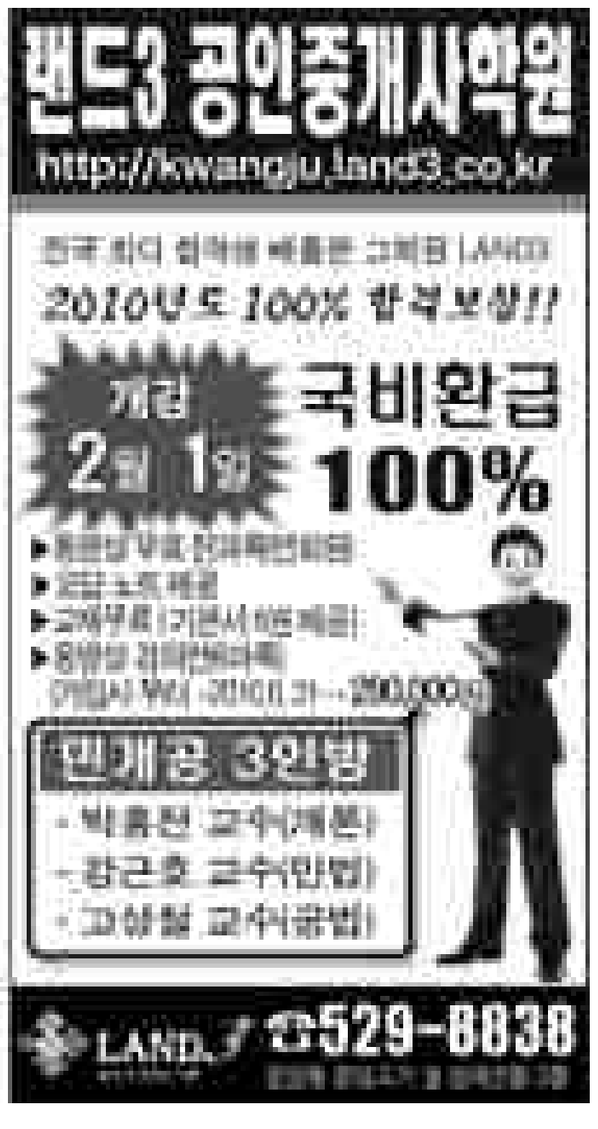
영산강환경청 사업 공모 선정…6억 지원 받아

화순군 지역특화사업인 꽃송이버섯 육성사업이 정부의 지원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

화순군은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하는 상수원관리지역 사업계획 공모에서 북면 '친환경 꽃송이버섯 육성사업'이 최우수사업으로 선정돼 특별 지원금 6억을 확보하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북면 노치리 폐교 건물을 활용해 접종실, 배양실 등을 만들 방침이다. 지원금으로 기계 및 설비를 확보 한 뒤 병버섯, 봉지버섯 형태로 종균을 배양해 근교에 있는 버섯 재배사에 공급할 예정이다.

꽃송이버섯은 꽃송이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높은 식·약용적 가치에 주목받고 있다.

꽃송이버섯은 인간 세포조직의 면역기능을 활성화해 암세포의 증식과 재발을 억제하고 면역세포의 기능을 활발하게 하는 '베타글루칸'이 다량 함유돼 있어 일본에서는 식품 또는 약품 첨가물로 사용되고 있다.

/중부취재본부=정운수기자 unsu@